

프로야구, 사상 첫 정규리그 개막 연기

KBO, 28일 예정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결정 코로나19 여파... 더 늦어지면 '무관중 경기'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이 1982년 프로 출범 후 처음으로 연기됐다.

KBO 사무국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이 모인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28일 예정된 프로야구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코로나19 사태 현 상황과 전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예방학교실 전병을 교수의 의견을 듣고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막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매주 실행위원회, 이사회를 번갈아 개최해 사태 추이를 살핀 뒤 개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주 실행위에서 결정한 대로 개막일은 선수단 운영과 예매 등 경기 운영 준비 기간을 고려해 2주 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신규 감염자 수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개막일을 다시 정할 것이고, 4월 중순까지를 개막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 이사회는 정상적인 리그 운영을 목표로 삼고 구단당 144경기를 다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까지 사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KBO는 일정 진행에 더는 차질을 빚어서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무관중 경기'로라도 2020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KBO는 정규리그를 준비 중인 각 구단의 준비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류 총장은 "이동과 숙박 문제 등이 안정될 때까지 각 구단은 자체 청백 전환 벌이고 구단 간 연습 경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사회 합의 내용을 전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을 연고로 둔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일정과 관련해 류 총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상성 홈 경기를 원정 경기 위주로 재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KBO 사무국은 정규리그 개막은 이미 발표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정규리그 개막일이 결정되면 이때 편성된 대진이 개막전이 될 것"이라며 "3월 28일부터 새로 정해지는 개막일 전까지 못 치른 경기는 추후 일정으로 재편성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 편성도 추진할 것이다.

류 총장은 마지막으로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류현진·김광현 시범경기 등판 일정

 <p>류현진 (33·토론토 블루제이스)</p> <p>1 2월 28일 2이닝 3피안타 (1홈런) 1실점</p> <p>2 3월 10일 4⅓이닝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p> <p>10일 현재까지 기록</p> <p>6⅓이닝 6피안타 1피홈런 6탈삼진 1실점 평균자책점 1.42</p> <p>연습뉴스</p>	 <p>김광현 (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p> <p>1 2월 23일 1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p> <p>2 27일 2이닝 3탈삼진 무실점</p> <p>3 3월 6일 2이닝 3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p> <p>4 3월 10일 3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p> <p>8이닝 5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 평균자책점 0</p> <p>연습뉴스</p>
--	---



막아블테면 막아봐 토론토는 10일 (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비버트 스타트 홀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원정경기에서 유타에 101-92로 승리했다. 토론토의 서지 이바카(오른쪽)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한 임성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

PGA 파워랭킹 9위 상승세 디샴보·우들랜드와 같은 조

최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로 떠오른 한국의 대표주자 임성재(22)가 '제5의 메이저 대회'까지 상승세를 이어간다.

임성재는 12일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7189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마스터스,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 챔피언십 등 4대 메이저 대회 못지 않은 권위를 인정받아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대회다. 올해는 총상금이 1500만 달러(약 180억3000만원)로 올라 이번 시즌 PGA 투어 대회 중 가장 많은 상금을 자랑한다.

임성재는 1~2라운드 PGA 투어 5승을 보유한 '필드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디샴보, 지난해 US오픈 챔피언 게리 우들랜드(이상 미국)와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여자농구 사령탑에 전주원·정선민 압축

여자농구 국가대표 사령탑 최종 후보로 전주원(48) 아산 우리은행 코치와 정선민(46) 전 인천 신한은행 코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협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쿄 올림픽 본선에서 대표팀을 지휘할 후보로 전주원 코치, 정선민 전 코치 2명을 선정했다.

최종 예선을 지휘한 이문규 감독이 2월 말 계약 기간이 만료돼 협회에서는 본선을 이끌 사령탑을 공개 모집했고 6일 마감된 후보 접수 결과 전주



전주원, 정선민.

원, 정선민 코치 외에 김태일(60) 전 금호생명 감독, 하숙례(50) 신한은행 코치까지 총 4명이 지원했다.

협회는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이날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이들 중 한 사람을 도쿄올림픽 본선 여자 국가대표 사령탑에 선임한다.

MLB 마운드 오른 류현진·김광현 '완벽투'

라이벌 구도... 둘 다 무실점 6월과 8월 중 맞대결 가능성

KBO리그를 대표했던 라이벌,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선발 등판해 나란히 호투했다.

류현진은 10일 오전 2시 7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볼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출격해 4⅓이닝을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김광현은 류현진보다 2분 이른 2시 5분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드스 해먼드 스타디움에서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3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두 선수는 KBO리그 시절 보여준 완벽한 모습을 미국에서 재연했다.

류현진은 뛰어난 완급 조절과 위기관리 능력, 다양한 변화구로 탬파베이 타선을 무력화시켰고, 김광현은 특유의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삼진 쇼를 펼쳤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교체되자마자 그가 체인지업을 활용해 삼진을 잡는 짧은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 소개하며 호투 소식을 알렸다.

세인트루이스 역시 SNS에 '김광현이 이번 스프링캠프 때 펼친 기록을 살펴보자'라며 그의 성적을 소개했다. 김광현은 올해 4차례 시범경기에서 8이닝 동안 11탈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비록 시범경기지만, 두 선수의 호투 행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KBO리그에서 보여줬던 라이벌 구도를 떠올리게 한다.

류현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화이글스에서 기복 없는 투구를 선사하며 리그 대표 예이스로 활약했다.

김광현도 2007년부터 SK 와이번스에서 류현진 못지않은 성적을 냈다.

두 선수는 선동열-故 최동원 못지않은 라이벌로 관심을 끌며 리그 흥행을 주도했다. 다만 선발로 맞대결을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서 펼치지 못한 두 투수의 대결은 미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은 6월 2~3일과 8월 19~20일, 두 차례 2연전을 펼친다.

류현진은 토론토의 명실상부한 예이스로 부상 등 이변이 없는 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간다.

김광현은 시범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팀 내 선발 진입 경쟁에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곱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포레스트(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뉴스 특보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심맛 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2 20:00 메탈도사 11:45 헬로카봇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9:15 나와서 공부 10:00 특집 부모투쟁 0.1%의 비밀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10 로보가 풀리 15:55 얼마 까투리 16:40 땀방울 친구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20:00 메탈도사 21:50 EBS 다크프린인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3:30 생로병사의 비밀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5:00 다큐멘터리 3일(재) 15: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10 포레스트(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5: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시노스톰 프리인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0 BBB삼총사의 모험 스페셜 12:50 뽀롱뽀롱 모두가 놀자 스페셜 13:20 헬로카즈 동물교실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람(재) 16:00 두 번은 없다(재) 17:00 5 MBC 뉴스 17:25 다큐에세이 그사람	12:10 SBS 12 뉴스 12:20 SBS 12 뉴스 12:50 트롯신이 떴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행복추진 해피타임 17:00 SBS 오 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참치가 이한철입니다 12:00 CBS뉴스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기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종원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00 더 라이브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소녀 20:30 글로벌24 20:55 실랑이는 남자들 1부 21:30 실랑이는 남자들 2부 22:00 포레스트 22:35 포레스트 23:10 도올학당 수다수철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1:30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2:05 실화탐사대 1부 22:35 실화탐사대 2부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종원의골목식당(재) 19:00 올레길 불영수영 건다보면 19:30 행복추진 해피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트롯신이 떴다 1부 22:40 트롯신이 떴다 2부 23: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00 탐사 프로젝트 제주 울 8:30 제주어담구상할 별타시대 9:30 글로벌 아카데미 11:00 KCTV 뉴스 13:10 일요일 KCTV 다크 14:00 탐사 프로젝트 제주 울 15:10 글로벌 아카데미 16:10 일요일 KCTV 다크 18:00 탐사 프로젝트 제주 울 20:00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종합뉴스 22:30 제주어담구상할 별타시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1일

김홍상 지단(001) 작명학원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p>36년 휴식과 안정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 48년 투기나 도박에서 멀리하길. 안정이 보장되는 은행의 적금이나 투자가 적절. 60년 혼자 있는 시간 속 외로움이 물려온다. 여행도 필요. 72년 험악한 동호회 등 모임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4년 주관이 뚜렷치 않을 때 선배의 충고나 내게는 보약이 된다.</p>	 <p>42년 부부간 갈등이 있거나 가정사로 고민이 생긴다. 이해와 배려가 묘약. 54년 실속이 적으니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자중해야 한다. 66년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날이다. 중요한 계약은 내일로 미루라. 78년 재테크 투자에 걸린다. 주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라. 90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다.</p>
 <p>37년 온전유니나 사우나에서 안정을 취해도 좋음. 49년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내 도움이 미약하지만 상대에게는 크다. 61년 활동이 왕성해도 내맘대로 할 수가 없다. 73년 남의 말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 도움이 없된다. 충동구매 주의. 85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이 생기니 귀가는 늦지 않도록 할 것.</p>	 <p>43년 내 노력을 인정받고 관청의 인허가 서류에 이익이 있다. 55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67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79년 사소한 이익이 따르고 직장이나 인정을 받는다. 91년 자식을 감정이나 오해로 인한 인장은 심신을 상하게 한다.</p>
 <p>38년 상가 또는 식당에 갈 일이 생기나 음식은 주의해야. 50년 문서를 이동수는 길하나 임시생이 있으면 부모는 정보분석 등 전문가와 상담. 62년 작은 일로 마음에 상처가 되니 관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 일을 하라. 74년 시험 자격증과 관련된 시험은 컨디션이 좋다. 86년 재능을 인정받고 주위 협조가 있다.</p>	 <p>44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기장등은 비웃음에 대상이 된다. 5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금전상 이득이 있는 날. 68년 일한 만큼의 이익 생기고 창업이나 개업은 신중하게 판단. 80년 직장이나 취업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92년 변동하는 것은 불리하니 신중을 기해야.</p>
 <p>3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모임 초대가 온다. 51년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63년 의욕은 넘치나 막상 해야 할 일의 중요성과 가치때문에 고민한다. 75년 변동. 변화가 필요.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도 필요. 87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취소하는게 좋다.</p>	 <p>45년 회담을 갖고 노력하면 일의 성과가 있다. 57년 상태를 감싸 안아 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니 이해를 많이 해줄 것. 69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주변과 공유하라. 81년 부동산이나 세일즈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3년 나의 체력이 왕성해도 능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p>
 <p>40년 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내일을 준비. 52년 소망할 일이 생긴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라. 64년 원칙과 꼼꼼함보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대처하라. 76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라. 88년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간 또는 옛사람과 조심.</p>	 <p>46년 자녀나 수하인의 자문이나 상담이 생긴다. 58년 이익을 먼저 논하지 말고 대의에 동참하는 게 좋다. 70년 새로운 발상 또는 손재주로 인한 사업은 진전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82년 미용분야의 뷰티업-악세사리업은 기쁨이 많다. 9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고 마음이 활거라 하다. 문서운이 있다.</p>
 <p>41년 일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제거방법을 찾는다. 53년 때때나 입대에서 이익이 있으나 슬은 자제. 65년 자녀로 인한 고민 같음이 오니 주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다. 77년 모임, 약속이 생기기도 하니 슬은 다소 자제. 89년 인정이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조기 귀가.</p>	 <p>47년 경쟁이 진행되고 질투나 배신 등이 오니 신중하고 친목에 어울려야 좋다. 59년 형제중에서 애경사가 생겨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1년 창업, 매매, 전문업은 활동이 분주하고 이익 증가. 83년 허세를 부리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말만 하고 행동조심. 95년 무리한 투기보다는 안전에 치중 필요.</p>